



개원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께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신

공영민 군수님, **민주평통 전승민** 회장님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여러분,

고흥군 기자협회 신용원 회장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10대 고흥군의회에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개원은 단순히 의회의 문을 여는 날이 아닙니다.

군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다시 새기는 날이며,

군민의 기대 앞에 더 큰 책임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저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아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늘 가슴에 새기며 군민만 바라보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의 의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회의실이 아니라 군민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답은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의 들녘과 바다에 있고,

시장과 골목에 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제10대 고흥군의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불편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움직이며,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말보다 결과를 만드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책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변화, 청년들이 희망을 품는 변화,
아이 키우기 좋은 고흥, 어르신이 행복한 고흥,
농어업이 미래를 준비하는 고흥.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한 마음만큼은 하나여야 합니다.
열두 명의 의원이 경쟁하는 의회가 아니라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하나의 팀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갑시다.
군민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협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의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군민을 위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해야 할 일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바로잡아야 할 일에는 군민을 대신해 원칙 있게 견제하겠습니다.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드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는 특별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군민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 사람의 불편을 해결하는 일이 군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늘 낮은 자세에서 군민과 함께 걸겠습니다.
앞으로 제10대 고흥군의회는 군민보다 앞서가기보다
군민과 같은 걸음으로, 군민보다 높은 곳이 아니라 군민 곁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를 신뢰로, 신뢰를 성과로 보답하는
제10대 고흥군의회가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군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 **김 민 열**